



CHARACTER



[오직 고통만이 생명을 빛나게하니]

66

네- 오늘도 열심히 맞아보겠습니다~!

이름

| (카테리나 디 알리야) | | |
|-----------------|--|--|
| | | |
| 나이 | | |
| 20 | | |
| | | |
| 성별 | | |
| 여성 | | |
| | | |
| 직위 | | |
| 소위(★) | | |
| | | |
| 신장 및 체중 | | |
| 167cm / 55.7 kg | | |
| | | |
| 소속팀 | | |
| 방어 | | |
| | | |
| 외관 | | |
| 댓글첨부 | | |
| | | |
| | | |
| 성격 | | |
| | | |
| | | |
| 낙천적인 / 나른한 | | |
| | | |
| | | |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카테리나는 이 모든 것을 낭만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노예와

같은 취급에도 자신에게 역할과 쓸모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니까요. 왠만한 불행이 아니라면 그녀를

꺾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가끔은 도를 지나친 낙천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과는 달리 비뚤어진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충성심 / 맹목적인

자신이 속한 부대는 물론이거와, 자신보다 높은 직급을 가진 이들을 지나치게 존경하고 복종에 가깝게 따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임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일지라도 카테리나는 기쁘게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자신의 자아나 목숨, 가치관보다 명령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투 / 고통을 즐기는

고통은 그녀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석처럼 더욱 빛나게 해주며 단단하게 해주죠.

간단하게 말하면 마조히스트.

자신의 능력과 상성이 잘 맞으며 같은 동료나 적에게 폭력받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이 없을 시에 불안을 느낄만큼 자신의 생명을 증명하는 데에 초조해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투를 좋아합니다.

이능력도 그녀의 고통에 동의하듯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능력

이능력명 - 세공 (細工)

이능력 설명

자신의 신체가 타격되는 횟수에 비례하여 자신의 신체가 빛나며 신체의 경도, 내구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자해를 제외한 오직 타해만으로 적용되는 능력이며, 받은 타격의 위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횟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격에 따라 신체가 강화되는 것의 최대치는 10번이며 그 이상일 시, 미미한 능력상향입니다 최대로 타격되었을 시의 신체강도는 대략 단단한 강철,혹은 보석과 동일합니다.

강화되는 신체는 아니라 머리카락, 피부, 눈, 체액 등 자신의 신체 전부입니다.

최대 발동시간은 3시간이며 그 이후의 신체강화는 다시 피격 받아야 합니다.

패널티

신체의 강도를 올리는 것일 뿐, 고통은 그대로 입니다.

3시간 이상 능력을 과도하게 늘려 사용할 시 심한 감각마비 및, 신체의 끝부분부터 괴사가 시작됩니다. 피해를 입지 못할 시, 신체의 능력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또한 능력 사용 시 자신에게서 나는 빛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기타

L

- 폭력
- 제압적 / 강압적인 상황
- 생물

н

- 절제
-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
- 불복종

S

- 임무 실패 - 무반응 - 정적 생일 - (기관은 알고 있겠지만) 본인은 자신의 생일을 모릅니다. 출신 구역 - 제 3구역 이능력이 발현되어 제 4구역으로 이동된 나이는 16세 가족 관계 - 부,모 제어칩이 이식된 곳은 본인 기준 오른쪽 어깨입니다. 자신의 이능력이 발현될 때 빛나는 신체를 은근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높은 직급을 존경하지만 자신의 승진을 바라진 않습니다. 책임감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 스테이터스



선관

샬롯 듀카르트 (Charlotte Ducart)

"원하신다면, 샬롯님의 발 받침대도 될 수 있는걸요~?"

평소 까칠하고 가학적인 샬롯을 존경하며 샬롯의 고기방패가 되길 자처합니다.

샬롯이 자신에게 막말을 할 때마다 만족스러워 하는중. 어째선지 자신을 싫어하는 듯한 기색이 있지만 신경 쓰지도,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데일 호크하울러

"..결국엔 개고생만 한 거 아닌가-?"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서 알던 사이.

데일이 센서에 걸려 격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5구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시 부대에서 만났지만.. 어째서 제 발로 돌아온건지 의문입니다. 데일이 도망 갈 때, 그가 말한 한마디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편히 선관방 와주세요~)

오너 호불호

과도한 유아퇴행, 스캇 제외 전부 좋아하고 포지션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서사, 맥락 없이 갑작스러운 수위높은 발언, 행동은 조율을 지향합니다 오너가 4444 수위에 미숙합니다..

러닝 도중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편히 말씀해주세요

오너는 캐릭터의 사상 및 발언, 행동 등과 무관합니다.